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배 미 정[†]

조 한 익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 대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척도,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공감 척도 및 자존감 척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 하는데 주요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를 탐색하고 이후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모델로 설정하여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첫째,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정과 소심 하위요인, 인지적 공감의 시뮬레이션과 조망수용 하위요인, 정서적 공감의 정서 전염, 근접 반응성 하위요인, 자존감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에 대해 고성향 집단과 저성향 집단을 나누어 두 집단 간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그리고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자존감과 인지적 공감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 유능성, 내현적 자기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자존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배미정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사범대 405호
Tel: 02-2220-1896 / E-mail: mi1649@hanmail.net

서 론

한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응적인 관계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관계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는 관계기술들이 요구 된다. 특히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는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며(Thompson & Green 2002), 심리사회적 발달과정 중 관계의 양적, 질적 폭이 넓고 깊어지는 시기이다. 그렇기에 해당 시기에서는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보다 성숙된 관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Erikson, 1963).

대학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선후배, 동료, 교수-제자 등의 다양한 관계 구조 내에서의 성공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라 할 수 있다(Schaller & Cialdini, 1990).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이끄는 요인으로는 주관적인 안녕감과 자존감 그리고 한 개인의 행복추구와 같은 주관적인 만족감을 들 수 있다. 한편 성공적이지 못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경험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 즉 외로움과 고독감, 무기력감과 좌절, 우울과 불안 등 심각한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김나미, 김신섭, 2013). 이러한 부적응은 대인관계 갈등을 유발하고 정체감 혼란 등 보다 심각한 이차적 심리장애로 이어 지기도 한다(김성희, 박경희, 2010). 대학생 적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새학기 증후군 중 10명 중 6명은 ‘새로운 친구관계에 대한 부담’을 70.4%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00년 이후의 학생상담연구소를 내방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정성진, 조현주, 2013; 김나미, 김신섭, 2013; 정은이, 2011; 김나영, 조유진, 2009; 송소원, 연문희, 2008; 2013. 2. 26. 조선일보). 이와 같이 대학생활의 바람직한 관계경험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적응과 건전한 인격발달에

만족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비효율적 대인관계경험은 불안정한 정서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대학생활 동안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상담 현장에 있는 상담사들은 상담을 진행하는 데에서 가장 힘든 내담자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겨왔다(최인선, 최한나, 2013). 특히 이들을 상담을 할 경우 생애 초기 주 양육자로 부터 비롯된 성격적 요인의 영향이 많아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라 하였다(Millon et al., 1985; Kohut, 1977; Kernberg, 1975). 이러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타인관계에서 자신을 적절히 지각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할 시 무망감(helplessness)을 인정하기보다 과장된 자기상으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심각한 나르시시즘적인 취약성(narcissistic vulnerability)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다(Rhodewalt & Morf, 1995; Akhter & Thomson, 1982; Kernberg, 1975). 이런 자기보호를 위한 자기과장성은 오히려 공허감, 만성적 수치심과 같은 내적갈등을 겪는 등 자존감의 저하가 심해진다고 하였다(구현경, 김종남, 2014; 이인숙, 최해림, 2005; Taylor et al., 2007).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있는 개인들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나 반응에 예민하여 수치심 및 굴욕감 등을 쉽게 느끼며(Robbins & Dupont, 1992), 칭찬과 관심으로 고조된 행복도 잠시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우울, 대인불안, 분노, 공격성, 삶의 불만족 등 역기능적 정서를 강렬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타인들과 교류에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기상이 현실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무너지거나 도전받게 되면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 자기의 괴리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져 유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실패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이성욱, 송현주, 2011). 이런 이유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대인관계 장면에서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있어 사회적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자기에와 관련된 최근 경험연구들에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보다 더 역제적이고 더 역기능적이어서 주관적 불편감을 더 크고 심리적 적응에서 실패하게 되면 적응성, 유능성, 안녕감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이성욱, 송현주, 2011; Hendin & Ceek, 1997; Wink, 1991).

이외에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에게 보이는 특징으로 부족한 대인관계 유능성과 더불어 낮은 공감능력과 자존감이 언급되고 있다. Thorndike (1920)는 대인관계 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을 타인과의 관계교류를 위한 자신의 내적인 동기, 상태, 행동 등을 인식하고 타인을 현명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바람직한 관계경험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적응과 건전한 인격발달에 만족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효율적 대인관계 경험은 불안정한 정서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Spitzberg(1989)도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사람은 기능적이고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지만, 대인관계 유능성의 부재는 개인의 성격형성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특히 정서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지속시키고 소심하고 과민한 상태를 가중시켜 부적응을 초래 한다고 하였다(구현경, 김종남, 2014; 한나리, 이동귀, 2010; 김나영, 조유진, 2009; 차경호, 2004; Stahbens & Wierzbicki, 1988).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 및 주

관적 안녕감유지 그리고 개인적 행복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이 심화될수록 대인관계의 범위가 좁고 융통성이 결여되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관계경험이 경직되고 제한받게 된다고 하였다(Leary, 1957). 더불어 대인관계 유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관련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병리적 현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타인의 감정인식에 둔감하여 진정한 공감이 어렵고 자존감이 낮은 편이어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쉽게 상처를 입고 수치심과 분노, 내재된 공격성을 보이거나(Rhodewalt & Morf, 1995; Akhter & Thomson, 1982), 비현실적인 과잉평가와 과도한 애정이 주어질 때 심각한 자기에 발달에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게 된다고 하였다(황선정, 2014; Hotchkiss, 2004). 대인관계와 내현적 자기에의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에가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기능손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강연우, 2004; Wink, 1991). 특히 병리적 현상으로 자기에 성향은 생의 초기 주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이해와 공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게 되어 자기에적 상처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Kohut, 1977; Kernberg, 1975). 이후 많은 선행 경험연구들에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타인과 관계가 단절되고 무관심하고 냉정한 이유를 공감의 결핍을 원인으로 보고 하였다(Carroll et al., 1998).

공감은 타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동일시하여 마치 상대방처럼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이 없이는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어떠한 타인의 생각과 행동도 이해하기 힘들게 한다(Smith, 2006). 특히 공감능력은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 시켜주고 사고 및 정서 그리고 적절

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신경일, 1999; Egan, 1976; Mead, 1934). 그렇기에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가장 필수적이며 기본 바탕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인 공감은 타인과의 강력한 정신유대를 돕고, 소통에 기여하게 된다(강준, 2013; Singer, 2006; Eisenberg & Miller, 1987).

공감(empathy)에 대한 초기 경험적 연구들은 인지적 공감에 보다 더 중요성을 두어왔다(Mead, 1934; Piaget, 1932).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인지적 공감 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감 또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확장되고 있다. Mehrabian와 Epstein(1972)등은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분류하여,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생각이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정서나 감정을 마치 자신이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라고 하였다(신경일, 1999; Mehrabian & Epstein, 1972; Lipps, 1907; Hogan, 1969). Gribble와 Oliver(1973)는 공감을 일상 언어분석법으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정의 내린바 있으며, Ritter et al.(2011)은 자기애적 성격장애 관련된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에서는 크게 결함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서적 공감에서 심한 손상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박민(2012)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과 관련된 뇌 영역과 신경적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병리적 문제를 가진 환자에게서 공감의 결핍과 손상을 야기 시키는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중재기법의 가능성을 논한바 있다. 또한 Hollin(1994)은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정서적 공감

으로 표출되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공감의 중요성을 거론 하였다(Davis, 2004; Eisenberg & Strayer, 1990; Hoffman 1984).

이상과 같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능력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적응적 대인관계의 한 측면에서 친사회적행동의 핵심변인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이화영, 2011; Davis, 1994; Eisenberg & Miller, 1987; Hoffman, 1984). Clark(1980)는 공감부족의 원인으로 타인의 욕구, 불안, 단점 등을 읽어 내지 못하면 사회적 긴장과 대인갈등 등을 초래하므로 공감은 한 개인의 사회적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Smith(2006)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게 만드는데 정서적 공감이 핵심기제라는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공감과 더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자존감의 역할을 살펴보면 자존감(self-esteem)은 자기(self) 스스로 얼마나 수용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평가로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기-가치감(self-Worth)으로 정의된다. 과장된 자존감을 보이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는 달리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오히려 매우 부정적일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다(Thomas et al., 2009; Emmons, 1984). 이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는 다르게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수반적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을 가지게 되어 표면적으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강한 열등감이 내재화된 방어적이고 손상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황선정, 2014; Emmons, 1984; Kernberg, 1975). 자신이 상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수반적 자존감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로 귀인하는 소극적 방어와 과대자기욕구 불충족으로 효율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이기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불

안정한 수반적 자존감은 공감능력 결핍과 더불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며 대인관계 유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서수균, 2007; 정남운, 2001; Zeigler-Hill, Clark, & Pickard, 2008).

지금까지의 연구흐름을 정리해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의 증진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황선정, 2014;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제시한 연구문제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자존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실제 상담 장면에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유능성,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자존감은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자존감은 유의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내현적 자기에 고성향 집단은 저성향집단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4;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자존감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소재의 4년제 H대학에서 교양수업을 듣는 대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반응누락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86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251명(남학생 98명, 여학생 153)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대상의 평균연령은 21.41(SD=2.54)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hkte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로 총 45문항으로 5점 척도 상에서 구성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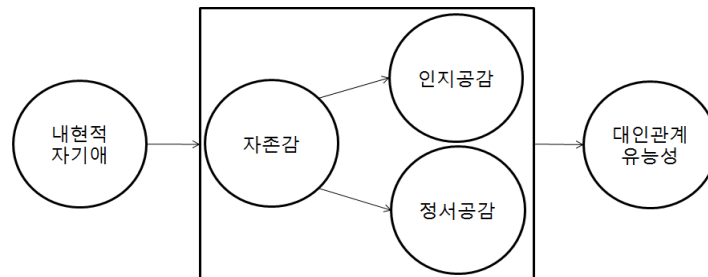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점수범위는 45점에서 225점)한다. 본 척도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으로 2개(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내현적 자기에 고유요인 3개(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순수한 고유요인 3개만을 사용하였다. 강선희,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91이며 하위요인 내에서는 하위요인 내에서는 .78-.92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였으며 하위요인 내에서 .70-.9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인지 정서 공감척도(Korean Version of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K-QCAE)

Reiners등(2011)이 개발한 인지 정서 공감척도(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QCAE)를 한국어로 강준(2013)이 번안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QCAE는 전체적인 공감능력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지적 공감의 하위 요소는 조망 수용/온라인 시뮬레이션 이었고, 정서적 공감의 하위 요소는 정서 전염/근접 반응성/주변 반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망 수용(Perspective Taking)은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온라인 시뮬레이션(Online Simulation)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가 상대방의 입장에 처했다고 상상하는 능력을 뜻한다. 정서 전염(Emotion Contagion)은 다른 사람의 정서에 의해 정서적 영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며, 근접 반응성(Proximal Responsivity)은 타인의 직접적인 정서 표현을 면 대 면으로 접하였을 때, 주변 반응성(Peripheral Responsivity)은 소

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 타인의 정서에 간접적으로 직면했을 때의 반응성을 측정한다. 강준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으며 하위요인 내에서는 .60-.88로 나타났다.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S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를 존중하는 정도와 자기를 승인하는 정도로 구성된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의 총 10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K-ICQ)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가 개발하고 이동귀, 한나리(2010)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한국판; 단축판을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포함된 5개 하위요인으로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 관리, 적절한 자기개방 이었으며, 본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전체문항과 각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내적합치도는 .53-.90로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문항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로부터 도출된 하위요인과 본 척도의 하위요인을 비교하여 보다 적합한 요인구조를 재설정하였다. 이로부터 분류된 하위요인은 총 5개로 문제해결 지원,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

나 불편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 관리였다. 내적합치도는 전체문항 .90이었고 하위요인 내에서 .70-.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첫째, 연구대상들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치를 확인해보았으며, 둘째, 성별에 따른 해당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기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중다회기 분석을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각 변수들의 설명력을 확인해보았다. 이와 더불어 군집분석을 통해 내현적 자기에 고성향집단과 내현적 자기에 저성향집단을 나누어 MANOVA를 통해 이들 집단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집단분류는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원인론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그리고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결 과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표를 표 1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변수들의 총합에서는 정서적 공감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남녀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정서적 공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정서적 공감이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각 변수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해당 변수들에 포함된 하위요인들은 각 하위요인들 간 그리고 해당 변수들의 총합 간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정서적 공감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에서만

표 1.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및 성별 간 평균차이 검증

변수	하위요인	남 M(SD)	여 M(SD)	총 M(SD)	t
내현적자기에 고위요인	목표불안정	2.69(.83)	2.68(.80)	2.67(.81)	.23
	과민	2.74(.69)	3.03(.70)	2.90(.68)	-3.19*
	소심	2.81(.65)	2.97(.69)	2.90(.68)	-1.75
	총합	8.22(1.79)	8.63(1.80)	8.47(1.80)	-1.78
인지적공감	조망수용	3.05(.45)	3.17(.46)	3.13(.46)	-2.20*
	시뮬레이션	3.11(.40)	3.10(.40)	3.11(.40)	-.073
	총합	6.16(.74)	6.29(.75)	6.24(.74)	-1.39
정서적공감	정서전염	2.72(.54)	3.00(.60)	2.88(.59)	-3.61*
	근접반응성	2.81(.56)	3.05(.51)	2.95(.54)	-3.46*
	주변반응성	2.84(.58)	3.07(.47)	2.97(.54)	-3.06*
	총합	8.37(1.33)	9.08(1.20)	8.81(1.30)	-4.39*
자존감	총합	11.70(1.96)	11.46(2.02)	11.56(2.00)	.93

(계속)

변수	하위요인	남 M(SD)	여 M(SD)	총 M(SD)	t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지원	7.22(1.39)	7.37(1.45)	7.31(1.42)	-.80
	관계형성및제시	33.35(7.73)	32.60(7.06)	32.89(7.33)	.79
	권리나불쾌함에대한주장	24.63(4.85)	25.34(5.62)	25.06(5.33)	-1.03
	타인에대한배려	14.79(2.63)	15.10(2.52)	14.98(2.56)	-.94
	갈등관리	21.78(3.73)	20.67(3.12)	21.10(3.41)	2.54*
총합		101.77(15.66)	101.08(14.71)	101.35(15.06)	.35

* $p < .05$ *

표 2. 각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																		
2	.46*	-																	
3	.49*	.61*	-																
4	.81*	.83*	.83*	-															
5	-.17*	-.11	-.21*	-.20*	-														
6	-.19*	-.05	-.14*	-.15*	.50*	-													
7	-.20*	-.09	-.20*	-.20*	.88*	.85*	-												
8	.13*	.30*	.28*	.28*	.11	.16*	.15*	-											
9	-.02	.20*	.12	.11	.32*	.24*	.32*	.63*	-										
10	-.15*	.09	.04	-.02	.15*	.14*	.17*	.25*	.35*	-									
11	-.02	.25*	.19*	.17*	.24*	.23*	.27*	.82*	.85*	.67*	-								
12	-.54*	-.62*	-.59*	-.71*	.24*	.14*	.22*	-.15*	.02	.06	-.04	-							
13	-.25*	-.26*	-.35*	-.35*	.37*	.28*	.38*	-.02	.15*	.16*	.12	.32*	-						
14	-.39*	-.21*	-.49*	-.44*	.34*	.29*	.37*	.07	.24*	.01	.14*	.45*	.44*	-					
15	-.24*	-.20*	-.44*	-.35*	.27*	.12	.23*	-.08	.03	.05	-.00	.32*	.43*	.52*	-				
16	-.23*	-.15*	-.23*	-.25*	.36*	.36*	.42*	.13*	.33*	.21*	.28*	.30*	.53*	.47*	.36*	-			
17	-.16*	-.19*	-.19*	-.22*	.22*	.48*	.39*	-.04	-.01	-.01	-.03	.22*	.37*	.38*	.20*	.41*	-		
18	-.38*	-.29*	-.52*	-.48*	.40*	.38*	.45*	.01	.18*	.08	.11	.46*	.62*	.84*	.77*	.64*	.58*	-	

$p < .05$ *

1=목표불안정, 2=과민, 3=소심, 4=내현적자기애총합, 5=조망수용, 6=시물레이션, 7=인지적공감총합, 8=정서전염, 9=근접반응성, 10=주변반응성, 11=정서적공감총합, 12=자존감, 13=문제해결지원, 14=관계형성, 15=권리나불쾌함에대한주장, 16=타인에대한배려, 17=갈등관리, 18=대인관계유능성총합

표 3.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한 각 예측변수들의 회귀분석결과

예측변수		β	R	R^2	F
내현적자기애 고유요인	목표불안정	-.186*	.535	.278*	33.032*
	과민	.114			
	소심	-.486*			
인지적공감	조망수용	.290*	.457	.202*	32.679*
	시물레이션	.237*			
정서적공감	정서전염	-.181*	.241	.058*	5.066*
	근접반응성	.308*			
	주변반응성	.007			
자존감		.507*	.507	.254*	86.007*

* $P < .05$

표 4. 대인관계유능성 하위요인들에 대한 MANOVA

요인	고성향집단	저성향집단	F	η^2	검증력
	M(SD)	M(SD)			
문제해결지원	6.93(1.46)	7.82(1.19)	26.797*	.097	.999
관계형성및제시	30.24(6.69)	36.41(6.62)	52.672*	.175	.999
권리나불쾌함에대한주장	23.75(5.18)	26.80(5.04)	21.672*	.080	.996
타인에대한배려	14.45(2.53)	15.68(2.44)	14.924*	.057	.971
갈등관리	20.50(3.21)	21.90(3.51)	10.821*	.042	.906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각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고유요인은 27.8%, 인지적 공감은 20.2%, 정서적 공감은 5.8% 그리고 자존감은 25.4%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소심요인($\beta = -.486$, $p < .05$)과 목표불안정($\beta = -.186$, $p < .05$)이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력을 갖고 있었고, 인지적 공감은 조망수용($\beta = .290$, $p < .05$), 시물레이션($\beta = .237$, $p < .05$)

하위요인 모두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공감은 근접 반응성($\beta = -.308$, $p < .05$), 정서 전염($\beta = -.181$, $p < .05$)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 집단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에 따라 모든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s Lambda=.99, $F(5, 245)=3212.47$, $p < .05$). 구체적으로 관계형성 및 제시, 문제해결지원,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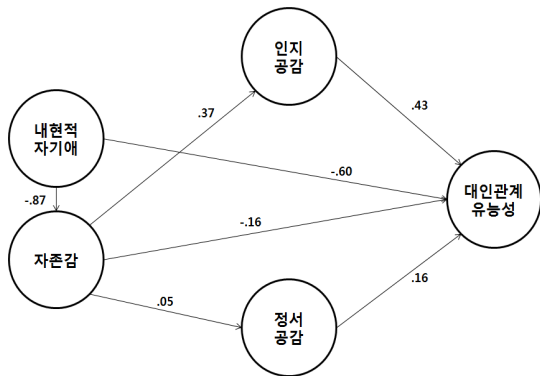


그림 2. 이론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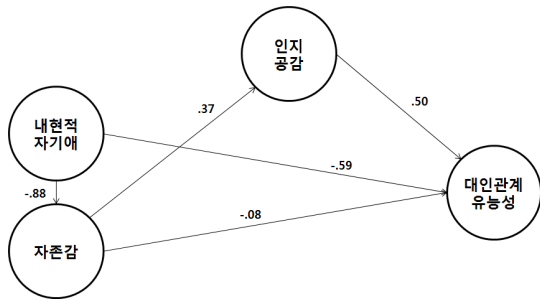


그림 3. 수정모형1

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 관리 순으로 높은 검증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들을 사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적합한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를 검증하였으며 이후 보다 간명한 설명이 가능한 수정모형을 탐색하였다. 결과 이론적 모형에 포함된 원인론적 변수들 중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 불일치하였던 정서적 공감의 역할을 고려하여 정서적 공감을 제외한 후 수정모형을 탐색하였다. 결과 정서적 공감을 제외한 수정모형은 적합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모형 적합도가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간명한 설명이 가능한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유의하지 않았던 경로를 삭제한 후 수정모형2을 설정하였다. 결과 수정모형1에서 자존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더라도 모델 적합도의 손상이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보다 간명하게 각 변수들 간의 원인론적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에서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된 수정모형1에 대해 적합도가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간명한 설명이 가능한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유의하지 않았던 경로를 삭제한 후 수정모형2을 설정하였다. 결과 수정모형1에서 자존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 1개를 제거 하더라도 모델 적합도가 유의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즉 수정모형 1보다 간명하게 각 변수들 간의 원인론적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 변수 사이에서 자존감과 인지적 공감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분석을 하였고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인지적 공감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자존감

표 5.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지수

모형	CMIN	df	χ^2	GFI	TLI	CFI	RMSEA(Lo-Hi)
이론모형	242.963	70	3.471	.884	.814	.857	.086-.113
수정모형1	130.984	50	2.613	.919	.901	.925	.064-.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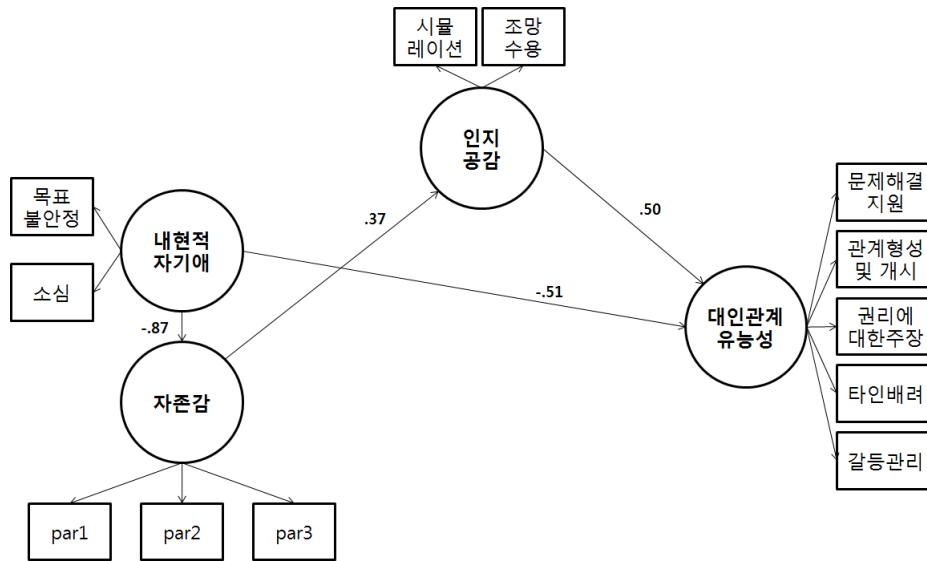


그림 4. 수정모형2

표 6.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차이검증

모형	df	χ^2_D	p	AIC	RMSEA(Lo-Hi)
수정모형1	1	.115	.734	188.534	.065-.099
수정모형2				186.651	.064-.097

과 인지적 공감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정모형2에 대한 추정치들과 효과 분해표를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 수정모형2 에 대한 추정치

관계변수	비표준화	S.E.	C.R.	표준화	
자존감 ← 내현적자기애	-1.143	.133	-8.586	-.869*	
대인관계유능성 ← 내현적자기애	-.925	.160	-5.784	-.512*	
인지적공감 ← 자존감	.180	.041	4.339	.369*	
대인관계유능성 ← 인지적공감	1.400	.274	5.114	.495*	
관계변수		추정모형			
소심 ← 내현적자기애	.965	.106	9.108	.755*	
목표불안정 ← 내현적자기애	1.000			.658*	

(계속)

관계변수		측정모형				
parcel1	←	자존감	1.000			.816*
parcel2	←	자존감	.678	.057	11.889	.739*
parcel3	←	자존감	.934	.074	12.711	.788*
조망수용	←	인지적공감	1.000			.740*
시물레이션	←	인지적공감	.795	.121	6.567	.672*
문제해결지원	←	대인관계유능성	1.000			.673*
관계형성및개시	←	대인관계유능성	5.728	.591	9.687	.750*
권리나불쾌함주장	←	대인관계유능성	3.321	.412	8.070	.597*
타인에대한배려	←	대인관계유능성	1.792	.201	8.895	.670*
갈등관리	←	대인관계유능성	1.839	.259	7.106	.517*

* $p < .05$

표 8. 수정모형2 에 대한 효과분해표

관계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매개	전체	직접	매개
자존감 ← 내현적자기에	-1.143	-1.143	-	-.869*	-.869*	-
대인관계유능성 ← 내현적자기에	-1.213	-.925	-.287	-.671*	-.512*	-.159*
인지적공감 ← 자존감	.180	.180	-	.369*	.369*	-
대인관계유능성 ← 인지적공감	1.400	1.400	-	.495*	.495*	-

*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에 관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고 이후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포함한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증 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자존

감 그리고 공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공감과의 원인론적 설명모형을 검증하면서 자존감과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사이에서 자존감과 인지적 공감의 유의한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개인들은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인지적 공감 수준이 낮으며 자존감과 인지적 공감의 기능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적응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황선정, 2014; 김우정, 2011; 홍명숙, 어주경, 2011; 이화영, 2011; 서수균, 2007;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자존감, 대인관계 유능성은 서로 간에 각각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자존감 수준 및 공감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고유요인인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과 소심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저하된다는 결과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정적 지각을 많이 하며, 우호적이 아닌 냉담한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선행연구들(구현경, 김중남, 2014; 강연우, 2004; 강선희, 정남운, 2002)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공감과 관련하여서는 인지적 공감이 정서적 공감보다 4배 이상의 설명력을 보였는데 이는 당면한 대인관계 상황을 조망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에서 자존감과 인지적 공감이 중요한 매개변수임이 확인되었고 이는 인지적 공감이 타인의 입장에서의 관점수용과 조망을 잘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잘할수록 대인관계 내에서 적응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홍명숙, 어주경, 2013; 김우정, 2011; Smith, 2006). 이와 더불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직접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의 부적응과 역기능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원인론적 구조모형은 내현적 자기에가 대인관계 수행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과 함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공감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공감 수준도 달라진다는 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자존감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감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서적 공감은 내현적 자기에와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Ritter(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원인론적 설명에서는 정서적 공감의 역할이 상쇄되는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내현적 자기에 특성이 정서적 공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지만 자존감 및 인지적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인 설명하고자 할 경우 정서적 공감의 역할 보다 인지적 공감이 보다 중요한 설명변수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사회적응과 인격발달을 위해 공감능력 향상을 조력하기 앞서 전반적으로 저하된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기개방 촉진과 허용이 가능하므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저하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인식

및 대인관점 수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실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을 위한 치료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의 자존감이 내현적 자기에의 행동과 적응에 있어 중요한 긍정적 심리적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행복,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정남운, 2001; Mussen, conger, & Kagen, 1963).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 수준에 따라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가져 올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초기 성인기라는 관점에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앞서 자존감을 향상 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또한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자존감과 인지적 공감을 통한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지적 공감 측면의 조망능력을 제공한다면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 일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홍명숙, 어주경, 2013; 박민, 2012). 더불어 인지적 공감 수준을 높이는 데는 조망수용을 통한 관점훈련, 역할수용 등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가 요망된다. 요약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인지적 공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두 비임상집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자기에성 성격장애자들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또한 자료수집 방법이 자기보고식 이었다는 점은 응답자들이 방어적인 태도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응답했을 가능성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추후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내적특성이 많은 공통된 요소들을 지니면서도 차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 또한 자기에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고, 공감을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선행연구들이 인지처리 양상 및 정서조절 양상에 주목한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감에 중점을 둔 연구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 인지적, 정서적 공감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정서조절 능력이 중요한 것이라는 선행 연구결과 중 상호간 균형이 강조되는 정서적 공감의 특성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의 특성을 연계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강준, 2013; Smith, 2006; Hatfield & Rapson, 1994).

마지막으로 공감의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이 높다는 결과가 많았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을 함께 측정하여 통제하면 성차가 사라진다는 연구(Hoffman, 2000)나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측면도 있을 가능성(Hodges, 1997)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로 부터 본 연구의 의미는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 준 (2013). 효과에 기반한 공감의 개인차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연우 (2004). 자기에와 방어유형. 학생생활연구, 9, 83-93.
- 구현경, 김종남 (2014). 내현적 자기에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김나미, 김신섭 (2013).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125-1144.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 효과. 인간발달연구, 16(3), 149-162.
- 김성희, 박경희 (2010). 대학생 대인관계조화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1(1), 375-393.
- 김우정 (2011). 자기에성향, 공감, 자존감 및 갈등 대처방식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박 민 (2012).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정신병리와 심리재활에의 함의. 재활심리연구, 19(3), 387-405.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 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송소원, 연문희 (2008). 대학생의 자기표현향상 집단상담을 통한 변화 경험 질적 분석. 상담학연구, 9(4), 1641-1663.
- 신경일 (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29(7), 1-37.
- 이성욱, 송현주 (2011).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정서조절방략,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연구 고찰.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65-83.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자기에,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화영 (2011). 공감, 자아존중감, 성격특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 정남운 (2001). 자기에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성진, 조현주 (2013). 학생상담센터 내방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1), 265.
- 정은이 (2011). 대학생을 위한 자기 성장 및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 상담의 효과 분석. 교육방법연구, 23(4), 687-712.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321-337.
- 최인선, 최한나 (2013).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815-2831.
- 한나리, 이동귀 (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홍명숙, 어주경 (2013).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에,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 황선정 (2014). 자기애성 성격의 인지구성: 구성주의 레퍼토리 그리드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Akh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Carroll, L., Hoenigmann-Stovall, N., King, A., Wienhold, J., & Whitehead, G. I. (1998).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arcissistic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1), 38-49.
- Clark, K. B. (1980). Empathy: A neglected topic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2), 187.
- Davis, M. (2004). Empathy: Negotiating the border between self and other. In L. Z. Tiedens & C. W. Leach(Eds.), *The Social Life of Emotions* (pp. 19-4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gan, G. (1999). 유능한 상담자: 상담의 문제 대처적 접근{*The Skilled Helper*}. (제석봉, 유계식, 박은영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9에 출판).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94, 101-131.
- Eisenberg, N., & J. Strayer (1990).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 271-29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ri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Gribble, J., & Oliver, G. (1973) Empathy and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8, 3-29.
- Hatfield, E., Cacioppo, J. T., & Rapson, R. L. (1994). *Emotional Contagion*. Londo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odges, S. D., & Wegner, D. M. (1997). Automatic and controlled empathy. In W Ickes (Ed.), *Empathic accuracy*(pp. 311-339). New York, US: Guilford Press.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on empathy. In C. E. Izard & R. B.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pp. 103-13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lin, C. (1994). Forensic(criminological) psychology. In A. Colman (Ed.), *Companion encyclopedia of psychology*(pp. 1231-1253). London: Routledge.
- Hotchkiss, S. (2004). 나르시시즘의 심리학{*Why Is It Always About You?: The Seven Deadly Sins of Narcissism*}. (이세진 역). 서울: 교양인(원전은 2006에 출판).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 function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personality evaluation*. New York: Ronald Press.
- Lipps, T. (1907). Das wissen von fremden ichen. *Psychologische Untersuchungen*, 1, 694-722.
- Mead, G. H. (1934). *Mind, self &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4), 525-543.
- Millon, T., & Everly, G. S. Jr. (1985). *Personality and its disorders: a biosocial learning approach*. New York: John Wiley & Sons.
- Mussen, P. H., Conger, O. J., & Kagen, E. (1963).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on: Kegan Paul.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1), 1-23.
- Ritter, K., Dziobek, I., Preisßler, S., Rüter, A., Vater, A., Fydrich, T., Lammers, C. H., Heekeren, H. R., & Roepke, S. (2011). Lack of empathy in patients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187(1-2), 241-247.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6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ller, M., & Cialdini, R. B. (1990). Happiness, sadness and helping: A motivational integra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pp.265-296). New York: Guilford.
-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56, 3-21.
- Spitzberg, B. H. (1989).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ry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the intercultural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3(3), 241-268.
- Stahbens, W. Z., Wierzbicki, E. T. (1988). He relationship of hypercholes terolem ia to atheros cleros is particular emphas is on familial hypercholes terolem ia, DM, obs tructive Jaundice. *Progcard iovas cularid is ease*, 30, 289-306.
- Taylor, L. D., Davis Kean, P., & Malanchuk, O. (2007). Self esteem, academic self concept, and aggression at school. *Aggressive Behavior*, 33(2), 130-136.
- Thomas, S., Bushman, B. J., Castro, B. O., Cohen, G., & Denissen, J. J. A. (2009). Educing narcissistic aggression by buttressing self-esteem: An experiment alfield study. *Psychological Science*, 20, 1536-1542.
- Thompson, B. R., & Green, P. R. (2002). Classroom strategics for identifying and helping college students at risk for academic failure. *Journal of College Student*, 36(3), 398-402.
- Thorndike, E. L. (1920). *Intelligence and its uses*. Harper's magazine.
- Wink, P. (1991b).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Zeigler-Hill, V., Clark, C. B., & Pickard, J. D.

(2008). Narcissistic sub type and contingent self-esteem: Do all narcissists base their self-esteem on the sam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76, 753-774.

원고 접수일 : 2014. 10.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4. 12. 12.
게재 결정일 : 2014. 12. 12.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Cognitive/Affectiv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Bae, Mi-Jung

Jo, Han-Ik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n explaining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vert narcissism. For this study, 251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recruited and they were required to complete the following scales: Covert Narcissism Scale(CNS), Interpersonal Competence Scale(K-ICQ), Korean Version of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Scale(K-QCAE), Self-Esteem Scale(SES). The data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with power of explanation in predi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then, a causal explanatory model among variables were established to s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First, Goal Instability of covert narcissism and sub-factor of Timidity, Simulation of cognitive empathy and sub-factor of Perspective Taking, Emotional Contagion in emotional empathy, sub-factor of Proximal Responsivity and Self Esteem were significant in explaining interpersonal competence. Second, covert narcissists we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high tendency and low tendency and the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every sub-factor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significant. Third, whe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were examined in an attempt to explain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vert narcissists; it was found that they not only explained were their interpersonal competence directly, but also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were found in self-esteem and cognitive empath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y.

Key words : Interpersonal Competence, Covert Narcissism,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self-esteem.